

교회 목표

신앙에 예배
천국입국 양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4 충헌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

다음 주일(28일) 2·3부 예배

영아·유아·유치부는 자체 예배/중직자들은 2부 예배 참석바람

다음 주일(11월 28일)에는 2004년도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들을 낱알이 해아려보고 깊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에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요! 부모님께서는 가족연합예배가 형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미리부터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추수감사주일의 참 뜻을 알려주며 한 마음으로 감사의 심정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사 50:23).

제7회 충헌 찬양의 밤

금주 금요일(26일), 오후 7시 봉당에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약 1000여 명의 성도들로 구성된 충헌의 여러 찬양대들과 연주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년보다 한 단계 상승된 이번 '충헌 찬양의 밤'에는 피아노, 트리오, 소년부 찬양단, 충헌장로주강단, 유치부 찬양대 등이 특별 출연하며 화중 찬송의 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두 시간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호응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 단기선교를 위한

제4차 CMTC훈련

다음 주일(28일) 오후 6시 10분에 개강

강의일자: 11월 28일(주일), 12월 5일(주일)

강의시간: 오후 6:10~8:10

강의장소: 갈릴리움 및 기타정소

훈련대상: 2005년도 단기선교 참가자(의견자 및 관심 있는 모든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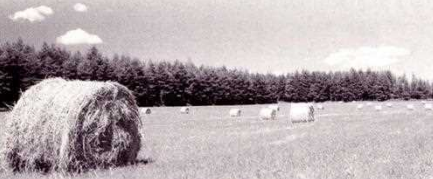
교육내용:

11월 28일

-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50분)
- 제2강: 충헌교회 비전과 선교정책(30분)
- 전도특강(30분)

12월 5일

- 제3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50분)
- 제4강: 타종교 이해(선택강의/30분)
- 종교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30분)



달고 오묘한 그림상(금요집회) - 천국 복음

제8장 천국,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3)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의 제자들이, 또 교회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이 땅에서 매인 것은 천국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려난 것은 천국에서도 풀림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열쇠를 사용하며 대제와 놀임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곧 주님의 제자들, 교회인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신을 내어맡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킨 성도들이 참여하여 다스리는 그 통치하심이다. 요한계시록 1:3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제 1회, 즉, 교회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며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 뿐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하나이다.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오순절에 그 시작을 두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고전 12:13).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로마서 12:4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감람나무에 비유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원가지가 거절당하였다(롬 11:5). 원가지가 나무에서 꺾였을 때에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감람나무에 접 붙어있었다(롬 11:17-24). 이것은 천국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이라고 불리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방인이 그 자리를 채워서, 결국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우러져 교회를 형성한다는 이 사실은 선지자들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던 비밀이었다(제 3회).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감람나무,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감람나무의 현재 상태가 마지막이 아님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산으로 꺾여져 버렸던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 을 있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롬 11:23,25,26).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신앙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완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그 나라가 사용되

는 것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며 진정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갈 3:7, 롬 2:28-29, 4:1,12,16).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따라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은 아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신을 따라 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재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아들을 위해 모든 이슬라엘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장래의 구원은 우리 주를 위하여도 언급하신 바 있다. "지회가 캄캄에 죽음을 담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대가 차가까지 이방인들에게 팔리리라"(눅 21:24). 이방인의 때가 차가까지, 즉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의 실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해 머물 것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그 때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과정과 때와 방법을 알 수 없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야말로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교회를 형성하여 나가는 성령의 역사와 장래에 나타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두 단계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현실같이 나타나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다스림의 대상은 모든 원수를 그의 발아래 두는 것이고, 여기에는 육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고전 15:25).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극치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롬 11:26).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에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계속적인 투쟁을 하며 이루어져가고 있다. 교회는 이 투쟁을 이루어나가는 도구이다. 그리고 이 투쟁이야말로 이 세대가 계속되는 한, 교회야 살아 있는 생명력 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교회가 인간 사회 가운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또 그의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형제로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지속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 안에서 영향을 발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마 5:13-16).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속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악한 사단의 권세 사이에 일어나는 투쟁의 초점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단의 어둠을 세력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에 저항하며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나? 그 날이 이르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이 온 땅을 채우게 되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THE HEART OF NEW LIFE

⁽¹⁵⁾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¹⁶⁾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¹⁷⁾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
(Colossians 3:15-17)

New life belongs to born again Christians. The Bible tells us that a born again Christian is a person who has been raised up with Christ, and seeks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3:1).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Does your heart search for the things above, or does it look for earthly things? Do not say you are a Christian if you hold on to the world and pine over its contents. Today's Bible verses mention what the inside of a born again heart looks like. They vividly describe the heart of new life.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 not see the kingdom of God"(Jn. 3:3). What is the heart of new life?

In the heart of new life the peace of Christ rules. A Christian heart is governed by the peace of Christ;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v. 15). The key word here is "rule". The heart of new life is bound, interwoven, and joined with Christ's peace, not your own. It does not matter what kind of condition or circumstance you find yourself in, a believer believes in the rule of God. You must understand that God is in control and cares very deeply for you. This assurance gives you wisdom, encouragement, boldness, guidance, sustenance, and every kind of provision you need. It brings eternal deliverance and security. It gives you true life. The peace of Christ is something only Christ possesses, which is why He is the only one who can give it to you. What kind of peace do you have? Is it the kind found in money, family, or work? I see too many silly Christians asking for and crying over earthly things. The peace of Christ rules the hearts that obey. If He rules your heart, you will have peace. You are not born with His peace. It comes through faith and obedience. Jesus said,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Jn. 14:27). You have to have the peace that Jesus gives you, not the peace from the world. Jesus said, "These things I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Jn. 16:33). So many of today's Christian leaders teach believers to glorify earthly things; like respect, children, and financial success. They do not teach the cross. Honestly, without Christ the world's treasures appear best. If you do not think of Jesus Christ, earthly things look so important. Romans 5:1 reminds us,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God's peace only comes through Jesus Christ.

In the heart of new life the word of God is rich, "Let the word of Christ richly dwell within you, with all wisdom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with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ing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 to God"(v. 16). The word of God becomes the word of Christ in a believers heart. You cannot understand God without Jesus. John 1 explains that Jesus Christ is the Word of God, and 2 Thessalonians 3:1 makes clear that the word of the Lord is Jesus Christ. The word of Christ does not dwell in your

heart automatically or naturally. Your heart does not produce peace by itself. It houses a bunch of earthly things. Therefore, believers have to make a dwelling place for the word of Jesus. They have to make room in their hearts for Jesus by emptying, cleaning, and setting up a place for Him. This way the word of Jesus can dwell there, "These words, which I am commanding you today, shall be on your heart.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sons and shall talk of them when you sit in your house and when you walk by the way an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rise up"(Dt. 6:6-7). You have to follow this way, so that God's word can live in your heart, for your heart is always dwelling earthly things. When you do this, Jesus promises,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Jn. 15:7). We must avoid worldly chatter, for it leads only to ungodliness. Whenever you think about things without Jesus it leads you away from God. Remember,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2 Tim. 3:16).

In the heart of new life is duty,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hrough Him to God the Father"(v. 17). You have a choice concerning your speech and actions. Christians choose to speak and ac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not their own. Jesus commands it! If you want to go to God, you cannot do it without the name of Jesus. God only listens through Jesus Christ. He alone is your representative before God. There is no other name so wonderful or powerful on the face of this planet. No matter how hard one tries, without Jesus, there is no response from God. Everything a believer does or asks is don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Luke 24:47 says, "And that repentance for forgiveness of sins would be proclaimed in His name to all the nations, beginning from Jerusalem." John 20:31 says, "but these have been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If you believe in Jesus, then you have great appreciation and thanksgiving to the Lord God, for He opens all blessings through Him. Jesus really died on the cross, so that you may have new life and heavenly peace. This is why believers are duty bound to thank God. The God of love becomes a believer's Father. Always give thanks upon thanks through Jesus Christ, no matter what. Colossians 3:23 reminds us, "Whatever you do, do your work heartily, as for the Lord rather than for men."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see 1 Cor. 10:31). It is your Christian duty to always give thanks for all th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 God, even the Father (see Eph. 5:20).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As your heart takes in God's word, be thankful. Please do not look to the world or the things in the world, but seek the things above. Open your heart to the Lord and make a special place for Him. Let His peace rule and richly dwell within you. Amen. 

[다음 주일 학교]

새 생명의 본질

¹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¹⁶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¹⁷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5-17)



김성환 목사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인가?

새 생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저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3:1 참조).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지요 아니면 땅에 속한 것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랄까 할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신자의 마음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거듭난 새 생명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신자의 마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5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의 마음은 여러분의 신자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우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으며 답답할 수 있고 인공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은 영원한 구원과 안전을 여러분께 가져다줍니다. 또 이런 확신은 여러분께 참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돈이 많고 가정이 평안하고 일이 잘되어 주시는 평강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지러진 이 세상의 축복을 탐하여 올려뭇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순종하는 마음을 다스립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자들이 하여금 이 세상 것들을 순종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명에, 자녀들, 경제적인 성공들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는 감추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배종하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축복들이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일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가?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신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6절).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하고, 태살로니가서서 3장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자체적으로 평강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것들이 잔뜩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결케 하며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권할 것이며"(신 6:6-7).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이 세상 것들로 가득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여러분은 세속적인 대화를 피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불경건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을 배종하고 무엇을 생각할 때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말도 행동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가?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신자의 마음 속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17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도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진 기도만 들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처럼 아름답고 권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말합니다. "그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은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바쳐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하나님인 신자들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고전 10:31 참조).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의무입니다(엡 5:20 참조).

오늘은 주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지가 마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위대한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장소를 여러분 안에 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수요부 예배 메시지

감추어진 생명

(골 3: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골 3:3).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생명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찾을 수 없고 또 헤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다.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으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는 확연하게 드러날 이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바란다.

귀한 것이라

이 생명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귀하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 13:44).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이요?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삶이라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생명을 가지고 산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삶을 산다(히 11:6).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다(골 2:12).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의의 삶이라

아담과 하와와 타락 이후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의의 삶을 살게 되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죄인이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공로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이 참된 복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삶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진으로 삼기는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즐거운 삶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와 찬미와 즐거움의 삶을 살게 된다. 이전에 우리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게 살며 만족을 몰랐지만 이제는 시의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밭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엡 5:19,20). 우리의 삶이 이처럼 감추어진 삶이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과 행복이여야 한다.

열매를 맺는 삶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죽는 삶이다. 그러다 이러한 삶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참으로 놀랍고 고소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무로무로하게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쇠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열매를 맺으신다(갈 5:22,24).

보이지 않는 삶이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십자가만이 증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다했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피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자신을 감추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니 그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기러기라"(시 91:1). 우리의 신앙과 삶도 이와 같기를 바란다. 이러한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생명의 영광 중에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골 3:4). 그 날이 올 때까지 감추어진 삶을 살자. 그리스도 안에서!

장로칼럼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리라

김형국
(장로, 시암부흥)

선교지를 선정하고도 팀원 구성이 안 되어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기도해야 했다. 유난히도 무뎠던 여름에 약 100여일의 준비기간을 가지면서 팀원이 10명으로 충원되었고 은혜 가운데 선교지로 출발하게 되었다. 막상 출발의 기쁨에 서니 형언하기 어려운 설렘과 함께 영적 싸움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우리 팀을 주님의 전폭적인 은혜의 손길에 부탁드리고 목적지로 향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고 그리던 그 땅! 모든 것들이 정겨웁으로 다가왔다. 굴속에서도 그리던 선교의 땅! 장시간의 피곤한 여정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첫날 밤, 나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다.

두 번째 사역지인 집시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당회로는 두리용과 공포감이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얹어놓았다. 그렇게 자신했던 우리 찬양팀들의 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전혀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전도지를 주고나니 복음을 전하였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는 그들의 손길들이 곳곳에서 뻗쳐 오고 있었다.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에게서 돈과 선물만을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몹시 위축되었으며 참담했다. 초라해진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어두움의 영에 얽매어 있는 수많은 심령들! 무엇을 찾아 방황하는지? 방황도 모르는 채 흘러가는 인생들을 생각할수록 더욱 복잡한 마음과 괴로움이 우리를 갇는다.

그러나 상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긴 다른 마을에서의 사역은 너무도 대조적이었다. 평온한 현지 농촌의 분위기와 주민들은 우리들을 만났듯 복음을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찬양을 하게 했다. 과일, 음료수와 먹을 것들로 우리들의 상함을 위로하는 듯 사랑의 온정을 베풀어 주었다. 생각하건대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니 그 사랑이 더욱 막강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평강의 시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흘러진 마음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한 시간이었다. 모든 대원들은 영육 간 피곤하여진 심령을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케 하시는 간절한 인도하심 속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였다. 뜨겁게 부르는 눈물의 기도를 하며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문제의 집시 촌을 방문하여 선교사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마을로 향하는 동안 우리 마음은 찬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 대장 예수님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안내자는 그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이어서 거칠고 난폭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새롭게 전의를 가다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미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며 그 마을에 진입하여 준비한 찬양을 전성으로 소리 높여 찬곡 한 후 꼭 불렀다. 그러는 사이 형상 갖게 일그러져 있던 표정들이 조금씩 풀리더니 환한 웃음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한 곡의 찬양이 끝나면 박수까지 터져 나오는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끝마로 전도로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새로운 사역지로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쌓였던 용이리 같은 패배감과 무거움에서 해방되어 밝은 기쁨으로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를 불렀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쁨의 눈물을 지었다. 찬송 중에 거하시니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찬양을 받으사 어두움의 세력에 불합한 광택한 심령들을 누려 주신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세로운 전도의 돌파구를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지난 8일간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팀이 비교적 일찍 도착하여 주일 모임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다른 팀들보다 더 많아서였는지, 팀원들이 큰 마찰 없이 은혜롭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역지에서 펼쳐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현지에서 만난 운전기사는 이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운전기사보다 우리 팀의 사역지를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운전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사역 초반에는 현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좀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복음만 선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의 일출의 부족함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 이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다. 외국인 이듬겨서 전하는 간절한 복음의 내용이 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방법이라니,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미려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사역 중 한 노부부와 젊은 청년 한명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어떤 노부부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자손도 없이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들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성한 인생에 관해 전도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그 노부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세상 것에, 육체의 일에 너무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였다. 다시 한 국으로 되돌아가서도 똑같이 되돌아오는 일상이었던지만 복음 안에서 진정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한번은 어떤 청년이 우리에게 자신의 부모도 함께 들어가길 간절히 바랐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안에는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여동생이 있었다. 그 청년이 우리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랐던 이유는 자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식구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 청년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복음에 대해 완고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청년의 바람대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그 식구들에게는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임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의 사역지 곳곳에 내려졌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적인 계획과 일하심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리라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미쁘고 그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번 사역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았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인복남(청년1부)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올해 두 번째로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고 수없이 모여 기도하고 언어공부를 했지만 정작 떠난다고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두려움을 가지고 선교지에 도착했다. 지난번에는 달리 이번에는 우리끼리 슬프다고 평강히 놀아 몸이 편지 힘들었다. 그래도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사역에 임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전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순수하게 우리들을 받아주는 현지의 영혼들은 참으로 귀했고 복음을 믿겠다는 다짐 어린 태도는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었다. 분명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었다. 나의 입을 열어주시어 담대히 말하게 하시는 이는 분명 성령님이시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선교지로 떠날 때 가졌던 두려운 마음은 온데간데없이지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 눈물이 복받쳤다.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보니 믿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도 교회에 너무 멀거나 없어서 갈 수 없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교회에서 그 나라로 더 많이 선교 가서 그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길 소망한다. 또 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픈 사람을 보았을 때 눈물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아픈 적도 있었다.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고 선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교를 다녀온 지금 더 많이 느끼며 감사한다. 그곳에서 전도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일하는 곳에서 떠오른다. 그들을 위해 순간순간 일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위해 한단 한다.

김기복(집사, 직원팀)

회개와 감사

저처럼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교회에 들어온 후 학업이 휘둘러 믿음의 자루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기도도 하지 않고 자주 주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명감보다는 이번 단기선교 다녀와면 믿음이 조금 회복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2주 정도 공부 못한 것을 생각하니 선교를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온 준비해온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선교지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선교지를 향해 가는 그 순간까지도 여행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선교활동에 편안함마저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피곤해도 쉽게 짜증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툰 언어로 전도를 시작했을 때 현지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급한 마음에 한국어로 기도해줄려고 할 때 그들이 바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언어를 좀 더 확실히 해둘 것'처럼 더 잘 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우니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보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하니 정말 용기가 생기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지역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어차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제 이익과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에 바빠서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들에게 좀 더 준비된 말씀으로 다가서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했고 그들을 떠나고 때 더 많은 말씀과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계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어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를 단순한 여행쯤으로 생각하고 미흡한 준비와 기도로 선교지로 떠난 점을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의 복음을 배우고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치런 정도 도전을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 주세요. 그 넓은 땅에서 저희들은 지극히 작은 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희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지역이 그 큰 나라의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나뉘준 한강의 전도지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라는 씨앗이 깊이 심겨져서 주님을 마음에 새기도록 해 주세요. 복음을 간직한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만나고 사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김민희(고등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11월 25일(목)~12월 2일(목)	영어부	김성호

"또한 우리들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림을 당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 4:3b)

두근두근 선교일기 ②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는 노방사역을 할 때에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접근하는 것이 꺼려졌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적어서 그런 것 같다. 처음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아 표정이 굳어 있었다. 내가 전하는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다. 하나님께 여러 가지들을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서 내내 기분이 좋았다. 전도를 할 때 현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보다 사람들이 전도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버리던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 사람도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읽어주었다. 그리고 노방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속도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전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우리 팀의 운전기사가 한번 바뀌었다. 한두교 골수분자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말 때문에 겁을 먹었는지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른 운전기사로 바뀌었다. 나는 선교 중 처음의 운전기사를 전도하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쉬웠다. 하지만 바쁜 운전기사라도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진형(중등3부)

플물부 지체들에게 보내는 편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 23:10).

불 내음의 따스함과 함께 찾아온 꽃의 향연이 어느새 겨울의 녹음의 시절을 지나오니 어느덧 현형색새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며 나무마다 저마다의 과실을 맺는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독서실에서 혼자 눈물짓기도 하고, 줄리는 눈 비바기며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잘 모르지 않는 모의고사 성적에 한숨쉬며... 그럼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주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플물부 지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1년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만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신실하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추수를 앞둔 순간, 일년 동안 길러주시고 보듬어주신 농부의 마음에 감사하는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농부는 무척이나 기쁘지 않을까요? 플물부 열매, 저마다의 열매, 농부의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거두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때에 동행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열매가 되길 기도합니다.

"내가 참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능음이냐 감동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시험의 결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가 붙잡았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길 가운데 결코 그 집은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작은 손 의지하여 두려워하거나 초조해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결과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순간들마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플물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곁에서 기도보 동역해 준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기도할게요. 플물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파이팅입니다!

이형남, 박민준 (대학부)

* "플물부" 은 대학부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전 유치부에서는 성경퀴즈대회가 열렸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여러 날 동안 선생님께서 나누어주시는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디더 퀴즈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사자와 선생님이 몇 문제를 내셨는데 유치부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떨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또 문제를 내셨어요. 잘 듣고 맞으면 O쪽으로, 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X쪽으로 움직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4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전부 O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나는 "이성하 물고기는 분명 5마리인데..." 라고 생각하고는 X쪽에 우리 반 친구 한 명과 같이 서 있었어요.

나는 자신 있었지만 그래도 떨렸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디더 선생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은 X입니다" "와! 신난다."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 정답을 맞추고 나니 정말 기뻐요. 그래서 마음 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말씀도 배우고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성경 이야기대회도 하니 참 좋아요. 앞으로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배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저에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김지윤 (유치부)

믿음

믿음은 뜨겁질하고 비슷하다.

믿음은 교회를 다녀야지 쌓아진다.

뜨겁질은 대바늘로 떠야지 한 줄 한 줄 쌓아진다.

그리고 믿음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뜨겁질도 줄이 많이 쌓이면 목도리나 스웨터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비슷한 점은...

믿음을 쌓지 않으면 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뜨겁질도 다음에 해야지"라고 자꾸 미루면 완성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다.

이런 점이 비슷하다.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

"믿음이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한 줄 한 줄 쌓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다정 (소년부)

참 기쁜 복 내 복일세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순행하니 참 기쁜 복 내 복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복일세
육신의 늘 못볼 때에 신령한 것 곧 밝히사
저 천성만 보게하니 참 기쁜 복 내 복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복일세
이 육신의 복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님께서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그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넓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은 날로 더욱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중심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면 그 기쁨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창하십니다. 나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할 때 나의 안에 나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구휼하심만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런 미련한 우리 인생을 사랑의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공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흉포를 일으키고 가시면류판을 쓴 채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그 아픔을 참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히 하시고 내 맘속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맘을 원보다 더 회개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습니다. 하지만 믿되신 주님이 저 분할 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쳐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며 나의 참 기쁜 복이십니다.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김성호 (청년1부)

교회탐방 42 고등부

주님을 만나야 할 때!

질풍노도, 이유 없는 반항, 꿈, 야심, 방황, 실수, 목아
름, 사랑...

필자가 고등부시절을 회상하며 떠올린 단어들이다. 다
큰 많은 분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
자는 좌충우돌하던 이 시절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 통해
배웠던 아성이 현실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온
든 시절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권언하며 사랑으로 다독여
준 이들의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오늘
은 바로 이 시절, 고등부의 친구들을 만나보았다.

-고등부 주일 예배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부 학생 중에는 찬양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간대
에는 고등부 순서를 모두 마쳐도 찬양예배 시간까지 오려 기다려야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시간대에서는 찬양예배에 참가하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또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올 수 있
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직 안정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차차 좋아지리라 봅니다." 백봉선
안수집사(총무처장)

"예전에 예배 시간을 변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출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오히려 많이
출석해서 기쁩니다." 서순숙(반 선생님)

"학생의 입장에서 기존에 일찍 나왔던 아이들이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만 예배
를 마치고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전에 늦잠 자는 친구들도 나올 수 있어
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생겼든 늦는 사람이 여전히 있어 아쉽습니
다." 김예진(여부회장)

"현재 우리교에서는 고등학생이지만 고등부에 참여하지 않고 본당에서 주일오전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배시간을 변경한 것은 이런 학생들이 고등부
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선 안수집사(부장)

-새로운 친구들은 주로 어떻게 전도하나요?

"저는 친구들을 전도할 때 먹을 것을 사준다고해서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전 친구 한명을 데리고 왔는데 요즘은 잘 나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윤용성(남부회장)

"저는 장기결석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장기적으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며 지속적인 연락을 취합니다." 김예진(여부회장)

-고등부에는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있다고 들었습
니다. 소개해주세요.

"영역성경부, 전도부, 성극부, 편집부, 찬양선교부,



미디어선교부, 학원전도부, 봉사부, 예본찬양대 등이 있
습니다. 특히 학원전도는 각 학교에 학생 한명을 천부장
으로 세워 전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봉선 안수집사

-자유롭게 성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고등부 장기결석자들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
지만 아이들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권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경(반 선생님)

"실제적으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주일에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하기 때문에 고등부에 보
내기 힘들다고 하시고, 학생들도 부모님 때문에 학원에 가야한다고 말합니다. 참 안타깝
습니다." 서순숙(반 선생님)

"저는 현재 고등학과 교사이기도하고 자녀의 대학입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
라 부모님 중에 자녀의 입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
도 막상 현실이 닥치자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인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교회와 직분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본을 보여 자녀들을 양육했으면 합니다." 구재환 파종장(부장)

-학창시절 고등부 공동체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한 말씀해주세요.

"주일 예배만 드린만 시간의 교제가 없다면 고등부에 오면 또래간의 신앙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 배우고 느끼며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성(남부회장)

"중등부까지는 각 학년별로 예배를 드리지만 고등부에서는 모든 학년이 함께 모이기 때
문에 선후배 관계가 있어서 이를 통해 신앙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김예진(여부회장)

"반별 공과를 통해 설교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김태호 안수집사
(교무처장)

"고등부 때처럼 온갖스러운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하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모든 성도들께 사랑의 권면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미경(반 선생님)

-그럼 고등부에 참석하길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바뀐 예배 시간과 그 외 시간
일정을 말씀해주세요.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12시 20분부터 50분 동안 분
반공부를 하고 오후 1시 10분부터 모임별 국수
를 먹습니다. 점심식사 후 소그룹별 모임을 갖고
오후 3시 주일 5부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부에는
성도의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친구들
고등부로 오세요." 백봉선 안수집사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오고 (305장)

"가정"에 관한 찬송 중 가장 많이 애창되고 있는 찬송이다. 이는 1967년 천령
택 목사가 작사했고, 구두희 교수가 작곡했다. 작사자는 이 찬송에서 크리스천
가정의 즐거움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묘사하여 지상의 낙원임을 노래했고, 예수
만 섬기는 우리 가정에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것을 노래한
찬사로 아름다운 찬송이다.

1절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정이 즐거운 동산임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한데 있다. 그래서 후렴을 통해서 임마누
엘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되시는 주님만 섬기고 살 때 복되고 즐거운 하
루하루가 계속된다는 것을 찬양한다.

2절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사랑하며 돌보아주고 형제자매들은 서로로 물쳐서 동거
동락하니 비록 초하늘 초가에서 삼만대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다.

3절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의 친구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
며 즐겁게 때를 즐기며, 그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찬양하고 있다. 바로 이곳이
낙원이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 온 가족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찬양을 통
해서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추수의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힘 있게 찬양
하자.

(천원강원회)

세 · 가 · 족 · 을 · 한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08	박준완	19	청년1부	임현덕(1)	2824	임추하	19	외선부	오철용(15)
2809	모규창	17	소망부	이정순(4)	2825	유정혜	19	청년1부	오철용(15)
2810	이유성	17	소망부	한기희(4)	2826	김예연	18	청년1부	김순이(17)
2811	오종학	12	청년2부	권영주(13)	2827	유정진	19	청년1부	
2812	윤명화	12	청년2부	권영주(13)	2828	강하정	19	대학부	전계식(7)
2813	주재태	16	청년2부	오숙희(1)	2829	박경혜	13	청년1부	임진실(10)
2814	주명호	17	청년2부	이진규(6)	2830	박성혜	19	청년1부	강석화(15)
2815	이향순	6	청년2부	이진규(6)	2831	정희준	1	청년2부	강석화(15)
2816	이신하	4	청년2부	이승계(1)	2832	이유나	19	대학부	이혁(14)
2817	사홍옥	2	청년2부		2833	박인숙	4	청년2부	이미주(4)
2818	백성산	8	청년2부	김명자(12)	2834	정재경	5	청년2부	이연순(5)
2819	김준향	7	외선부	박찬옥(12)	2835	차경순	8	청년1부	박유진(19)
2820	안유여	19	외선부	오철용(15)	2836	최현경	19	대학부	석귀수(13)
2821	전정정	19	외선부	오철용(15)	2837	박미란	19	대학부	석귀수(13)
2822	장지현	19	외선부	오철용(15)					

* 송헌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시가록 등록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모임

1. 전사 4지의 월례회
일시: 24일(수) 오후 1부 예배후
장소: 영아부실

발세

1. 김순애 권사 이종광 성도, 이우선 성도의 모친, 12교구 공덕구역 / 11일 발세, 13일 장례
2. 정형모 씨 정영자 집사의 부친, 장세기 집사의 장인, 4교구 잠원2구역 / 16일 발세, 18일 장례
3. 황바둑 타교신사 안동희 집사의 모친, 조옥희 집사의 시모, 18교구 동천2구역 / 16일 발세, 18일 장례
4. 안인열 성도 김경선 은희권사의 아들, 16교구 비산구역 / 17일 발세, 19일 장례
5. 모순애 씨 김영조 성도의 모친, 양미소 성도의 시모, 17교구 신흥구역 / 17일 발세, 19일 장례

결론

1. 이경준 군 (이병진 안수집사, 이송자 집사의 아들, 헬스그래이스 교회)와 임지영 양 (임철남 씨, 김창희 타교집사의 딸, 1교구) / 26일(금)

1300 갈릴리움

2. 박정진 군 (박원식 성도, 김순일 권사의 아들, 8교구)와 양혜는 양 (양희만 타교집사, 만남식 타교집사의 딸, 19교구) / 27일(토) 1400 평균회관 연리지 예배실 1층 연리지홀(8호선, 2호선 잠실역 7번 출구)
3. 주영신 군 (주중희 성도, 성훈선 권사의 아들, 5교구)와 김지홍양 (김용만 씨, 홍정자 씨의 딸) / 27일(토) 1400 상계제세택빌딩 ☎ 538-8803
4. 신원준 군 (신종식 안수집사, 고운대 권사의 아들, 15교구)와 박지영 양 (박경훈 장로, 안병선 권사의 딸, 타교회) / 27일(토) 17:30 주님의교회(송파구 잠실동 정신교회 중앙동,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
5. 김성국 군 (김학봉 집사, 김인숙 집사의 아들, 3교구)와 박종선 양 (박원희 씨, 홍순식 씨의 딸) / 27일(토) 1200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가야금홀

◆음양이론 및 실기교육

각 부서 예배담당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음양이론 및 기지조각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관계자 및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양실에 구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5:30~6:45

교육장소: 본당 5층 음양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임무현	여국근/박충철	김교성/장철규	안창덕/이상혜	정진호/이승득	나경영/윤순식	정충신/신동자

예배담당 안내 (11/24~11/28)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11/24	수요 I	천사의 노래 (호산나 찬양대)	나경영	김숙자	요나의 감사 (론 2:1-9) 김성관 목사
11/24	수요 II	주는 나의 왕전구 (실로암 찬양대)	김준희	진명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롬 8:18-25) 윤순일 목사
11/26	금요일예배	제1회 충현 찬양의 밤	류명희		고광환 목사
11/28	주일 I	(예배 전 찬양)	이정훈	임무현	새 생명의 본질 (골 3:15-17) 최성규 목사
11/28	주일 II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외 소프라노 김순연(전임독창자)	조규호	권명옥	새 생명의 본질 (골 3:15-17) 김성관 목사
11/28	주일 III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외 소프라노 김순연(전임독창자)	정현민	박덕양	새 생명의 본질 (골 3:15-17) 김성관 목사
11/28	주일 IV	하는 바는 끝이 외 소프라노 류승연(이연 찬양대 솔로리스트)	여국근	김승곤	새 생명의 본질 (골 3:15-17) 김교성 목사
11/28	주일 V	선한 목자와 선수리 우리 테너 유종훈(현명 찬양대 솔로리스트)	유진광	김경일	새 생명의 본질 (골 3:15-17) 이재영 목사
11/28	주일양양	현악 중주 벨레오드동부 연합 찬양대	이희식	양기수	자유인 (롬 6:15-23) 장 훈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오후 3:00	본 당
	(폴로가 드리는 예배)	
전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1. 오전 11:00 2.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예배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회 안내

집회	시 간	차 량
회오리예배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예배	오후 10:30	금요일출부 본당 앞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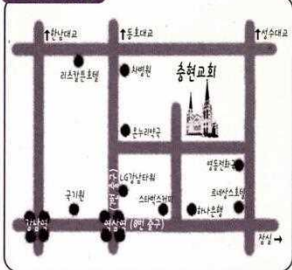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1호	청 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II 오전 11:00			오후 12:3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오전 10:50		청 년 2부	오후 12:30	
유 소 년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청 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오전 10:50		소 랑 부	오후 12:15	
중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 랑 부	오전 11:00	복지전 지하1층
	오전 10:30		예배다부	오전 9:00(학부)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오후 1:00(일반)	교육관 207호
	오전 10:30		타 학 부	오전 9:00-오후 2:00	
중 소 년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세 가 족 양육 부	1. 오전 9:15 2. 오후 12:15	강림의 복, 배다나홀
	오전 9:00		충현어린이회	주간교육	
중 소 년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충현장학인교부	주간교육	충현 복지전
	오전 9:00		국대한국어인교부	오전 11:00	
중 소 년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아 벨 홀
	오전 9:00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토. 오후 2:00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토. 오후 5:30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소라왕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11월 충현 가도의 창

1.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성서 통치하심으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2. 영원 진부대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복음을 확신하며 그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3. 2005년도 단기선교 계획과 CMTO훈련이 하나님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게 하소서.
4. 충현교회의 단기선교사역을 통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5.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을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

- 김의철 2교구
- 김은호 2교구
- 노광현 2교구
- 오진규 2교구
- 이병하 2교구
- 정현민 2교구
- 박기원 2교구
- 류명희 2교구
- 이종철 2교구
- 김영철 2교구
- 김교성 2교구
- 안창덕 2교구
- 나경영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
- 이재영 2교구
- 이정수 2교구
- 김단용 2교구
- 황영일 2교구
- 한승규 2교구
- 이현수 2교구
- 안도현 2교구
- 이재민 2교구
- 박덕양 2교구
- 박종환 2교구
- 김정현 2교구
- 김성관 2교구
- 김교성 2교구
- 김익환 2교구
- 하준철 2교구
- 이성진 2교구
- 이정훈 2교구